

2024 이배이
추가자료

실전 모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024 - 3월

교과서 | 인문예술 | 사회문화 | 과학기술 | 개념통합 | 실전모의

모의고사 오버뷰

2024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3월

서론

- 본 자료는 각종 사설/교육청/평가원 모의고사를 '배경지식'의 관점에서 리뷰하는 자료로, 학생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양질의 모의고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 '이배이' 교재 집필을 하며 체계화된 기출/EBS 자료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EBS 연계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모의고사의 특성에 따라 2024학년도 비연계 출제 지문의 경우, 2023학년도 EBS에 유사한 지문이 있다면 해당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이배이는 "오르비 전자책/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배이 수능특강 (상)	https://docs.orbi.kr/docs/10916
이배이 수능특강 (하)	https://docs.orbi.kr/docs/10917
이배이 수능완성	7월 출시
이배이 에센셜	9월 출시

문항 번호	EBS 연계	지문 번호	영역	EBS 주제	비고
4~9	수특p11 수특p284	2024 개념#2(가) 2024모고#1-2	인문/예술	-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기능주의의 관점과 그 의의 - 삼각 측량 논증의 기본 전제와 이를 통한 사고 형성	
10~13	-	-	사회/문화		
14-17	-	-	과학/기술		

*지문 번호는 이배이 교재에 표기된 번호입니다.

2024학년도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3월

수특 p11	[4~9] 데이비슨의 이론
수특 p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일원론과 정신 인과 - 데이비슨을 비판하는 물리주의자들의 견해 - 무법칙적 일원론, 인과적 배제 논증과 인과적 중층 결정 	

연계 기출	
평가원	2014.11.B, 2022.예시
LEET	2019(19~21)

2024 인예48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	☆☆
<p>분석 철학자 도널드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이 있다. 첫째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감각이 어떠한지를 안다. 둘째 자기 주위의 세계들, 즉 그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그 인과적 속성에 관한 것을 안다. 셋째 타인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안다. 이 세 가지 경험적 지식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데, 우선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증거나 관찰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의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의존 때문에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자기 마음에 관한 지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에 열려 있게 된다.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추가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지식이 대상이나 사건들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마음에 관한 지식은 전혀 직접적이지 않다. 만약 타인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즉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곧 그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 역시 불확실성을 지닌다.</p>		
<p>도널드 데이비드슨의 세 종류의 경험적 지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안다. 2. 자기 주위 세계들 속 대상이나 사건의 위치, 크기 등을 안다. 3. 타인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 안다. 		

2024 수특 p. 284

2024 인예49	데이비드슨의 삼각 측량 논증	☆☆
<p>자기와 타인의 마음, 그리고 그 반응의 공통 원인이 되는 외부 세계 속의 대상이나 사건을 각각의 꼭짓점으로 하는 삼중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의 사고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데이비드슨의 삼각 측량 논증이다.</p>		
<p>삼각 측량 논증</p> <p>자기 자신, 타인의 마음, 반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고루 고려하여 사고가 형성된다고 보는 논증</p>		

2024 수특 p. 284

2024 인예3	동일론과 기능주의	☆☆☆
<p>신경 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p>		
<p>동일론: 정신 상태가 뇌와 동일함 기능주의: 정신 상태가 뇌와 동일하지 않음</p>		

2024 수특 p. 11

2024 인예4	인공지능의 목표	☆☆☆
<p>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인공 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 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p>		
<p>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p>		

2024 수특 p. 11

밀접 연계 기출 지문

심신이원론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2014학년도 수능 B형

동일론과 이원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 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

2024학년도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3월

2023수특 p302	[10~13] 부재자의 재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자의 정의와 생사 불명 상태 -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민법의 판단 	

연계 기출	
평가원	2023.09
LEET	-

밀접 연계 기출 지문

유류분 제도
<p>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p>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과거 유사 지문

증여와 유류분 제도
<p>사유 재산 제도하에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을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기만 하면 증여(贈與)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하게 되면 개인이 생전에 했던 증여, 그리고 유언에 의해 이루어진 유증(遺贈)까지 경우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다. 법적 상속인들은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p>
<p>증여: 세금을 내며 재산을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넘겨주는 것</p> <p>유류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p>

2023 수능특강 p. 302

2024학년도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3월

2023수특 p302	[14~17] T세포의 면역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세포의 역할 - MHC의 역할 - T Cell의 반응 기전 - T Cell의 면역 관용(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 	

연계 기출	
평가원	2019.09
LEET	-

필수 어휘

출처: 2023 수특/수완

단어	뜻
면역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외부 병원체에 대해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것으로 대응
선천성 면역	특정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후천성 면역	병원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병원체를 막아내는 것

밀집 연계 기출 지문

항원 항체 반응과 LFIA 키트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과거 유사 지문

면역의 종류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특정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선천성 면역이며, 둘째는 병원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병원체를 막아 내는 후천성 면역이다.

선천성 면역은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에서부터 몸 안으로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동한다. 우리 몸의 피부, 그리고 소화기나 호흡기의 내벽을 덮고 있는 점막은 병원체의 체내 침투를 저지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또한 땀, 눈물, 침 등의 분비액은 체내에 침투하려는 병원체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병원체의 성장을 억제하여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하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통해 그 병원체를 제거한다. 이러한 선천성 면역 체계는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후천성 면역은 특정 항원에 특이성을 보이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항원의 특이성을 드러내는 돌출 부위를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B 세포와 T 세포에는 특정 에피토프에만 결합하는 항원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던 이질적 항원이 발견될 경우, B 세포와 T 세포는 자신의 항원 수용체와 항원의 에피토프를 맞춰 본 후 여러 종류의 B 세포와 T 세포 중 그 항원에만 결합하는 특정 B 세포와 T 세포를 증식하게 된다. 이러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 증식된 B 세포는 형질 세포와 기억 B 세포를 형성하고, 이 중 형질 세포의 항원 수용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데 이를 항체라고 한다. 이렇게 형질 세포에서 대량으로 분비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과 관련된 병원체의 활동을 막아 내는데, 이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한편 증식된 T 세포는 도움 T 세포, 세포 독성 T 세포, 기억 T 세포를 형성하며, 이 중 특정 항원에 특이성이 있는 세포 독성 T 세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사멸시킨다. 이는 항체를 만들지 않고 세포가 직접 작용하여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선천성 면역: 병원체가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며, 제거하는 면역 반응

후천성 면역: 특정 항원에 특이성을 보이는 세포를 통한 면역 반응

에피토프: 특정 항원에 특이성을 드러내는 돌출 부위

2023 수능특강 p.22